

NEAR사무국, 동북아청소년 그림·포스터 수상작 발표 관련(11.29)보도자료 스크랩

2021.11.29.(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인터넷	뉴시스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에 역대 최다 작품 응모	
2	인터넷	뉴스핍	경북도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3	인터넷	뉴스포인트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4	인터넷	국제i저널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5	인터넷	더코리아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6	인터넷	CBN뉴스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7	인터넷	에너지경제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8	통신사	세계뉴스통신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공(공)민(민)뉴스
NEWSIS 지방 > 대구/경북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에 역대 최다 작품 응모

등록 2021.11.28 09:13:40



[안동=뉴스시스] 최우수 작품 '몽골 어딘가에서' (사진=경북도 제공) 2021.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스시스] 류상현 기자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포항) 사무국이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역대 최다 작품이 제출됐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9회째인 이 공모전에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26개 회원단체 청소년들이 역대 최다인 456점의 작품을 제출해 기량을 겨뤘다.

지난 25일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사무국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심사한 결과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의 '몽골 어딘가에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중국 내몽고자치구 투머터 고등학교 우자민 양의 '사자춤'이 우수상, 일본 도야마현 호리카와 중학

교 오지마 리에 양의 '지우편의 오래된 거리', 경북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양의 '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석굴암'이 장려상을 받는 등 180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모전은 NEAR 사무국이 동북아시아 지방 거주 청소년들의 그림 작품 교류로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

NEAR 사무국 관계자는 "역대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경북 관내 및 인근 시도에서 순회 전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최 도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ring@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에 러시아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 작품 '몽골 어딘가에서'

- 기사입력 : 2021년 11월 28일 12:27
- 최종수정 : 2021년 11월 28일 12:27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과 함께 올해 9회째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서 러시아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의 작품 '몽골 어딘가에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중국 내몽고자치구 투머터 고등학교 우자민 양의 '사자춤'이 우수상으로 뽑히고, 일본 도야마현 호리카와 중학교 오지마 리에 양의 '지우편의 오래된 거리', 경북 경주 근화여고 김다은 양의 '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석굴암'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러시아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의 작품 '몽골 어딘가에서' [사진=경북도] 2021.11.28 nulcheon@newspi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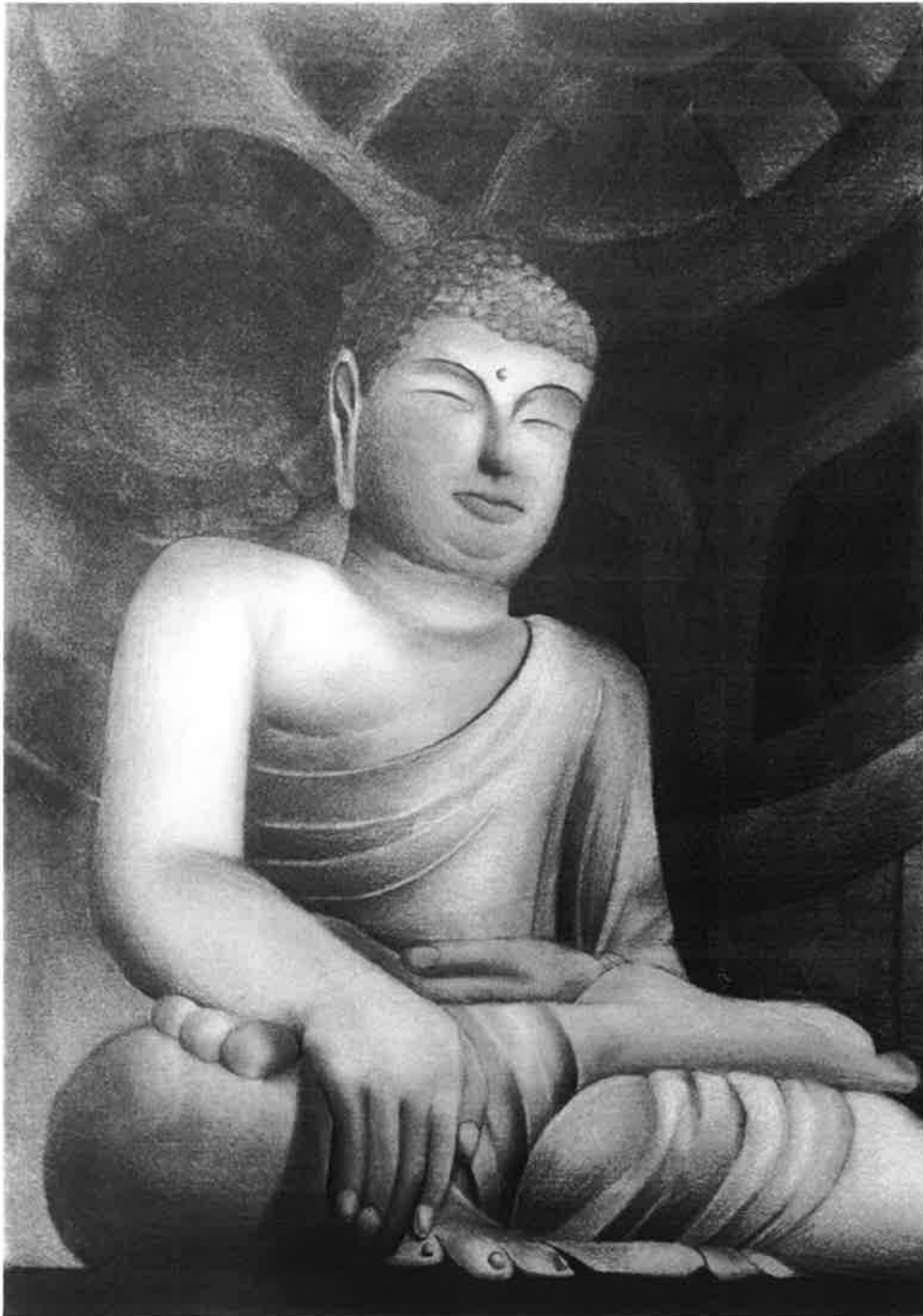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NEAR 청소년 공모전'에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26개 회원단체 청소년들이 작품 456점을 출품해 기량을 겨뤘다.

경북도는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사무국 등 5명의 외부 위원 심사를 거쳐 지난 26일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결과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의 '몽골 어딘가에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중국 내몽고자치구 투머터 고등학교 우자민 양의 '사자춤'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일본 도야마현 호리카와 중학교 오지마 리에 양의 '지우편의 오래된 거리', 경북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양의 '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석굴암'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80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양의 '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석굴암'. [사진=경북도] 2021.11.28
nulcheon@newspim.com

공모전은 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방 거주 청소년들의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456점이 응모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NEAR 사무국 관계자는 "역대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경북도와 인근 시·도 순회 전시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개최 도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 뉴스핌 & Newspim.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456점 출품해 기량 겨뤘

박마틴 기자 newspoint112@gmail.com

등록 2021.11.29 08:01:52



▲ 최우수_몽골 어딘가에서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경상북도는 25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소년 공모전'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26개 회원단체 청소년들이 작품 456점을 출품해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사무국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심사한 후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의 '몽골 어딘가에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중국 내몽고자치구 투머터 고등학교 우자민 양의 '사자춤'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일본 도야마현 호리카와 중학교 오지마 리에 양의 '지우편의 오래된 거리', 경북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양의 '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석굴암'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80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모전은 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방 거주 청소년들의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456점이 응모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NEAR 사무국 관계자는 "역대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경북 관내 및 인근 시.도에 순회 전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최 도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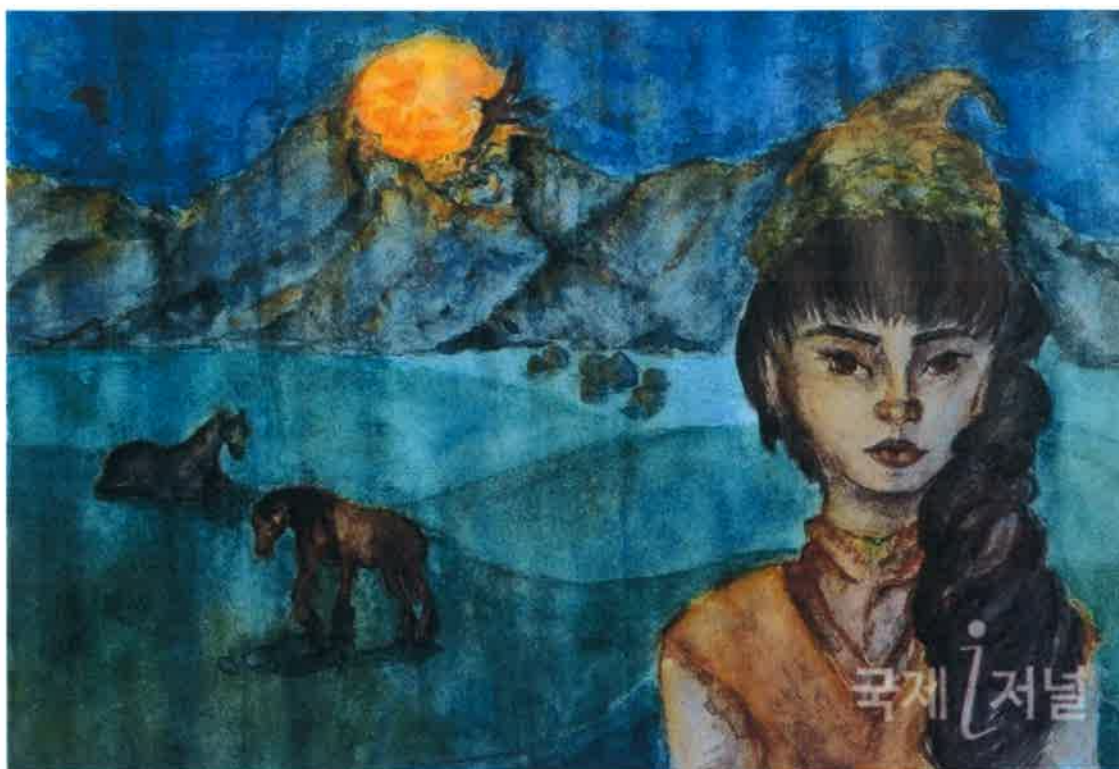
HOME 문화·연예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456점 출품해 기량 겨뤘

이연서 기자

승인 2021.11.28 19:57



▲최우수 '몽골 어딘가에서'©국제i저널

[국제i저널=경북 이연서기자] 경상북도는 25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소년 공모전'에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26개 회원단체 청소년들이 작품 456점을 출품해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사무국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심사한 후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의 '몽골 어딘가에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중국 내몽고자치구 투머터 고등학교 우자민 양의 '사자춤'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일본 도야마현 호리카와 중학교 오지마 리에 양의 '지우편의 오래된 거리', 경북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양의 '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석굴암'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80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모전은 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방 거주 청소년들의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456점이 응모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NEAR 사무국 관계자는 "역대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경북 관내 및 인근 시.도에 순회 전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최 도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서 기자 ijj@ijj.co.kr

<저작권자 © 국제i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456점 출품해 기량 겨뤘
- 러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 '몽골 어딘가에서' 최우수상 차지

김동현 기자 kdh4941@naver.com

등록 2021.11.28 10:05



<몽골 어딘가에서>

[더코리아-경북] 경상북도는 25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소년 공모전'에는 동북아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26개 회원단체 청소년들이 작품 456점을 출품해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사무국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심사한 후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의 '몽골 어딘가에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중국 내몽고자치구 투머터 고등학교 우자민 양의 '사자춤'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일본 도야마현 호리카와 중학교 오지마 리에 양의 '지우편의 오래된 거리', 경북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양의 '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석굴암'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80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모전은 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방 거주 청소년들의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456점이 응모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NEAR 사무국 관계자는 “역대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경북 관내 및 인근 시.도에 순회 전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최 도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2021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경상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456점 출품해 기량 겨뤘 - - 러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 '몽골 어딘가에서' 최우수상 차지 -

2021년 11월 28일 [cbn뉴스]



↑↑ 최우수(몽골 어딘가에서)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25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소년 공모전'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26개 회원단체 청소년들이 작품 456점을 출품해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사무국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심사한 후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의 '몽골 어딘가에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중국 내몽고자치구 투머터 고등학교 우자민 양의 '사자춤'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일본 도야마현 호리카와 중학교 오지마 리에 양의 '지우편의 오래된 거리', 경북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양의 '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석굴암'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80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모전은 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방 거주 청소년들의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

터 시작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456점이 응모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NEAR 사무국 관계자는 “역대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경북 관내 및 인근 시.도에 순회 전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최 도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youngl5566@naver.com

“ ”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bn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cbn뉴스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정재우 jjw5802@ekn.kr

최종 기사입력 2021-11-28 09:34:29



▲최우수 몽골 어딘가에서 슈시나 예바 양 수상(제공-경북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5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소년 공모전'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26개 회원단체 청소년들이 작품 456점을 출품해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사무국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심사한 후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의 '몽골 어딘가에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중국 내몽고자치구 투머터 고등학교 우자민 양의 '사자춤'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일본 도야마현 호리카와 중학교 오지마 리에 양의 '지우편의 오래된 거리', 경북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양의 '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석굴암'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80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모전은 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방 거주 청소년들의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456점이 응모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NEAR 사무국 관계자는 "역대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경북 관내 및 인근 시·도에 순회 전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최 도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w5802@ekn.kr

정재우 (jjw5802@ekn.kr)

< 저작권자 ©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 >

프린트

취소

경북도, 제9회 NEAR 동북아 청소년 그림 공모전 개최

✎ 디지털편성부 | ㉠ 승인 2021.11.29 08:24

| 동북아 5개국 청소년, 그림.포스터 456점 출품해 기량 겨뤘



최우수_몽골 어딘가에서

[세계뉴스통신 디지털편성부] 경상북도는 25일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사무국이 매년 동북아 5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해 온 'NEAR 청소년 그림.포스터 공모전'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NEAR 청소년 공모전'에는 동북아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소재로 중국, 일본, 한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5개국 26개 회원단체 청소년들이 작품 456점을 출품해 기량을 겨뤘다.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사무국 등 5명의 외부 위원이 심사한 후 이날 발표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이르쿠츠크주 중학생 슈시나 예바 양의 '몽골 어딘가에서'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또 중국 내몽고자치구 투머터 고등학교 우자민 양의 '사자춤'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일본 도야마현 호리카와 중학교 오지마 리에 양의 '지우편의 오래된 거리', 경북 경주 근화여자고등학교 김다은 양의 '관광도시 경주를 대표하는 석굴암'이 장려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80개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모전은 NEAR 사무국이 차세대의 주역인 동북아시아 지방 거주 청소년들의 그림 작품 교류를 통해 이웃 국가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인 456점이 응모해 해당 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NEAR 사무국 관계자는 "역대 수상작품을 우리 청소년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경북 관내 및 인근 시.도에 순회 전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최 도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편성부 segyenews1@naver.com

저작권자 © 세계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